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

# 이 사미를 특별석에 앉혀라

선(禪)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선서를 쉬운 말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납자가 <조주록> 선해를 연재하자니 선의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포부만 앞세웠을 뿐 공연히 잎과 가지만 소개하고 말까 하는 두려움이 있다. 연재 도중에 강호제현의 아낌없는 질책을 보내주신다면 미더운 가운데 한결 나아진 선해(禪解)가 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붓을 드는 바이다. 연재에 인용될 판본은 <고존숙어록> 중에 있는 '조주진제선사어록'이다.

조주 선사는 후당시대(778~897)에 임제 선사와 함께 활동하였던 대표적 선승이다. 조주 스님은 어린 사미승으로 본사(本師)와 함께 남전 스님을 예방한 후 남전 스님을 법사로 수행을 시작했다. 당시 남전 스님과 조주 스님이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조주록> 행장을 보면 남전 스님은 비스듬히 누워서 다음과 같이 사미와 첫 대담을 시작했다.

남전 "어디에서 왔는가?"

사미 "서상원(瑞象院)에서 왔습니다."

남전 "그래, 서상(瑞象)은 보았는가?"

사미 "서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누워 있는 부처님은 봅니다."

그러자, 남전은 일어나 앉으면서 물었다.

남전 "너는 주인이 있는 사미인가, 아니면 주인이 없는 사미인가?"

사미 "주인이 있습니다."

남전 "너의 주인은 어떤 분인가?"

사미 "봄이라곤 하지만 아직 춥습니다. 화상의 존체에 만복이 깃들기를 바라옵니다."

그러자, 남전 스님은 유나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 사미를 특별석에 앉혀라."

남전 스님은 첫 대면에서부터 조주를 예사롭지 않게 보았다. 조주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함과 당찬 기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사미가 큰 스님을 친견하면 주눅이 들어 제대로 말도 못할 것인데, 조주는 남전을 보고 '누워있는 부처'라고 당당히 호칭했다. 이 발언은 남전이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게 한 사건이 됐다.

선불교는 사람은 누구나 원래부터 부처임을 전제한다. 때문에 어린 사미의 이 발언에 남전은 눈이 번쩍 뜨였다. 그리고 곧 "네게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 사미는 서슴없이 "주인이 있다"고 대답했고, "그가 누구인가"라는 반문에 "바로 남전 스님 당신이 제 주인입니다"라는 뜻으로 "존체에 만복이 깃들기를…"하고 절을 올린 것이다. 사미가 남전을 스승으로 모시고 싶다는 표현을 그야말로 기특하게 한 것이다. 사미의 이 대답은 마치 중견 선객의 선문답처럼 몇 단계 건너 뛴 것이라, 남전은 조주를 특별하게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장래에 한 시대를 풍미할 인재가 찾아왔음을 처음부터 알아봤다.

조주 선사는 남전 스님 휘하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은 시기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18세 전후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조주록> 첫 장에서는 남전 스님과의 대화중에 '평상심시도(平常心是道)'라는 말에 깊은 뜻(玄旨)을 돈오(頓悟)했다고만 기록돼있을 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조주 선사는 60세에 천하를 다니면서 행각을 시작했다. 그 후 80세가 돼서야 조주(趙州) 동쪽의 관음원 주지로 정착했다. 이후 118세까지 관음원 낡은 절에 머물면서 사람들이 와서 불법을 물으면 대답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자칭 촌 늙은이(田庫奴)로 살았다. 조주 선사는 일을 벌이는 것을 싫어하는 성품이었고, 머리는 명석해 남보다 두세 단계 앞서서 말했기 때문에 선사의 한 마디, 한 마디 선구(禪句)는 그동안 다른 선사들에게 보이지 않았던 독특함과 깊은 맛이 배어있다.

**몇 마디 말로 질문의 정곡을 찔러 사람을 깨닫게해**

**선문의 깨닫고 보림하는 '돈오보림'사상 보여줘**

조주 선사는 주로 말 몇 마디로 질문의 정곡을 찔러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교화에 임했다. 그래서 조주 선사의 접화방법을 구순피선(口脣皮禪)이라고 한다. 그러나 말로써 사람을 깨닫게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선사의 격외구(格外句) 못지 않은 깊고 은밀한 뜻이 들어 있어 당대의 선사들조차도 감탄을 자아냈다.

<조주록> 행장 중에 혀를 내두르게 하는 선문답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하루는 남쪽에서 어떤 스님이 조주를 찾아와서 설봉 스님과 나누었던 문답을 전했다.

객승이 설봉(雪峰)에게 묻기를,

"예전부터 있던 차디찬 샘물에 적셔졌을 때는 어떠합니까?"

설봉 "눈을 크게 떠보아도 밑이 보이지 않는다."

객승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떠합니까?"

설봉 "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하고 말하자, 조주 스님이 이것을 듣고,

조주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콧구멍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했다. 그 스님이 곧바로 조주 스님에게 물었다.

객승 "예전부터 있던 차디 찬 샘물에 적셔졌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쓰다."

객승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떠합니까?"

조주 "죽는다."

나중에 설봉 스님이 이 말을 전해 듣고는 "고불(古佛)이야, 고불(古佛)!" 하면서 다시는 이 물음에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예전부터 있던 차디찬 샘물은 본질을 표현한 것이다. 조주 스님은 "그 물을 마시면 죽는다"고 했으니 명쾌하고도 심오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하니 당대의 선사들조차도 조주 선사의 선구(禪句)에는 더 이상 다른 견해를 붙이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주 선사의 입에서 '조주무자', '뜰 앞의 잣나무', '판치생모' 등의 유명한 화두가 나왔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선객들이 가장 많이 참구하는 화두가 되고 있다.

조주 선사는 <조주록>에서 후학들에게 먼저 이치를 탐구하고 20~30년을 좌선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을 권했다. 선사 스스로도 "남전 스님 휘하에서 돈오(頓悟)를 얻고도 110세 노년에 이르러서도 아직 수행한다"고 말해, 선문의 전통 수행법인 깨닫고 보림하는 돈오보림(頓悟補任)의 사상을 보였다. 조주 스님과 임제 스님은 동시대의 선승이나 그 가풍은 완연히 다르다. 임제 스님은 방(榜), 할(喝) 등 선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교화에 임했지만, 조주 스님은 주로 대담을 통해 사람을 깨닫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조주 스님의 선문답에서 빈번하게 눈에 띄는 것은 '중생이 부처', '마음이 부처'라는 내용이다. 이것은 임제 스님도 <임제록>에서 수 없이 강조했던 바이므로 이 점에 있어 두 선사의 기본 사상은 같다.

선불교는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돈오(頓悟)이고 돈수(頓修)이다. 더 이상 부처가 되려고 닦는 것은 없다. 다만 앞으로 부처의 행을 행하면 될 뿐이다. 이것은 본 납자의 말이 아니고 <육조단경>에서 나온 말이다. 이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는 그 어떤 선문답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하니 지금 즉시 마음이 부처임을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라.

석우 스님 무불선원 원장
해인승가대 19회 졸업
동국대 선학과 졸업
동방대학원대학교 철학박사
현 무불선원 원장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6

# 미혹하면 '육취' 나타난다

[원문]

答曰 若有衆生 不了正因 迷心修善 未免三界 生三輕趣 云何三輕 所謂迷修十善 妄求快樂 未免貪界 生於天趣 迷持五戒 妄起愛憎 未免嗔界 生於人趣 迷執有爲 信邪求福 未免癡界 生於修羅趣 云何三重 所謂縱三毒心 唯造惡業 墮三重趣 若貪業重者 墮餓鬼趣 嗔業重者 墮地獄趣 癡業重者 墮畜生趣 如是三重 通前三輕 遂成六趣 故知惡業.

또 대답하셨다. 중생이 정인(佛心印, 자성청정심)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한 마음으로 선을 닦으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세 가지 가벼운 갈래에 태어나느니라.

무엇을 세 가지 가벼운 갈래라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미혹한 마음으로 십선(十善)을 닦으며 망령되이 쾌락을 구하면 탐욕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여 하늘 갈래에 태어나는 것과, 미혹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키되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헛되이 일으키면 성내는 경지를 벗어나지 못하여 인간의 갈래에 태어나는 것과, 미혹한 마음으로 유위(有爲)에 집착하여 삿된 것을 믿고 복을 구하면 어리석음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아수라의 갈래에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세 가지 가벼운 갈래라 하느니라.

무엇을 세 가지 무거운 갈래라 하는가 하면, 이를테면 삼독의 마음으로 오로지 나쁜 업만 짓는 것이니라.

탐욕의 업이 무거운 자는 아귀의 갈래에 떨어지고, 성내고 원망한 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갈래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의 업이 무거운 자는 축생의 갈래에 떨어지느니라.

이 세 가지 무거운 갈래와 앞의 세 가지 가벼운 갈래를 합치면 육취가 되느니라.

萬橡本無形, 동성 스님 作.

[해설]

육도에 태어나게 되는 마음 씀씀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우주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선을 닦으면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세 가지 갈래 천상세계, 인간세계, 아수라 세계에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이를테면 미혹한 마음으로 십선(十善)을 닦으며 망령되이 쾌락을 구하면 탐욕의 경지를 벗어나지 못해 하늘 갈래에 태어나는 것과, 미혹한 마음으로 오계를 지키되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헛되이 일으키면 성내는 경지를 벗어나지 못해 인간의 갈래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십선은 살생하지 않고 방생을 행하며,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보시를 행하며, 사음을 하지 않고 윤리 도덕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말을 행하며,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자비의 말을 행하며,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행하며, 악담하는 말을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행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작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마음을 쓰며, 성내지 않고 미소 띤 마음을 행하며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마음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십선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의 마음을 두고 행하지 못한다면 천상에 태어나게 된답니다. 또한 어리석은 마음으로 오계를 지킨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물질이나 형상에 매달려 복을 구한다고 하면 천상 · 인간 · 아수라 세계의 몸을 받게 됩니다.

무엇을 세 가지 무거운 갈래라 하는가. 이를테면 삼독의 마음으로 오로지 나쁜 업만 짓는 것입니다.

나쁜 업을 짓는다는 것은 남을 속이는 일, 살생하는 일, 술을 파는 일 등이 나쁜 업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남에게 술을 팔아서 나쁜 일에 연루가 된다면 간접적인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은 부처님께서도 되도록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업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 탐욕의 업이 무거운 자는 아귀의 갈래에 떨어지고, 성내고 원망한 업이 무거운 자는 지옥갈래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의 업이 무거운 자는 축생의 갈래에 떨어집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